

aT get

GLOBAL EXPORT
TRENDS

2014

SEP
HK-01

홍콩의 과일 및 채소 시장

- I. 경제 전망
- II. 과일 및 채소시장 요약
- III. 살충제 규정의 비교
- IV. 한국산 과일 및 채소의 과제 및 방안
- V. 한국산 과일 및 채소의 시장전략
- VI. 부록



홍콩의 과일 및 채소 시장

I . 경제 전망

1. GDP 성장을 전망	3
2. 소비자 물가지수 전개	4
3. 평균 가처분소득 및 지출	5

II . 과일 및 채소시장 요약

1. 과일 및 채소시장 개요	9
2. 수입산 과일 및 채소에 관한 규정 및 정책	15
3. 과일 및 채소의 안전 과제	18
4. 한국산 수입 과일 및 채소에 관한 시장개요	19
5. 국가별 수입산 과일 및 채소 비교	24

III. 살충제 규정의 비교	29
-----------------	----

IV. 한국산 과일 및 채소의 과제 및 방안	39
--------------------------	----

V . 한국산 과일 및 채소의 시장전략

1. 전체 시장가치 및 구성내용 정보	45
2. 소비자 선호도	46
3. 유통경로	49

VI. 부록

1. 과일 및 채소 수입업자 정보 및 교역 선호도	53
2. 홍콩내 과일 및 채소의 소매가격 비교	54

I .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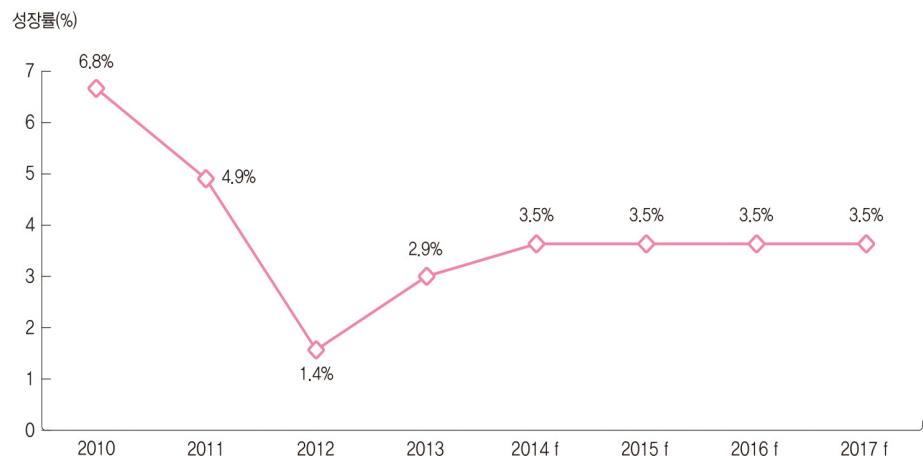
1. GDP 성장률 전망
2. 소비자 물가지수 전개
3. 평균 가처분소득 및 지출

- 홍콩정부는 중국 본토와의 경제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홍콩의 경제개혁 정책을 중국 본토의 것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 내부적으로, 홍콩 정부는 홍콩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력 및 산업구조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향후 수년간 대규모 기간시설 공사가 계속 이루어져, 내수 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 GDP 성장을 전망

- 홍콩정부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연 3.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전망에는 유럽연합 및 미국에서 발생되는 외부적 어려움, 중국의 경제개혁, 개발의 낙관적 전망, 홍콩의 인구학적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¹⁾

| 2010~2017년도 홍콩 실물 GDP 성장률 |



출처: 조사 및 통계국, 경제분석과,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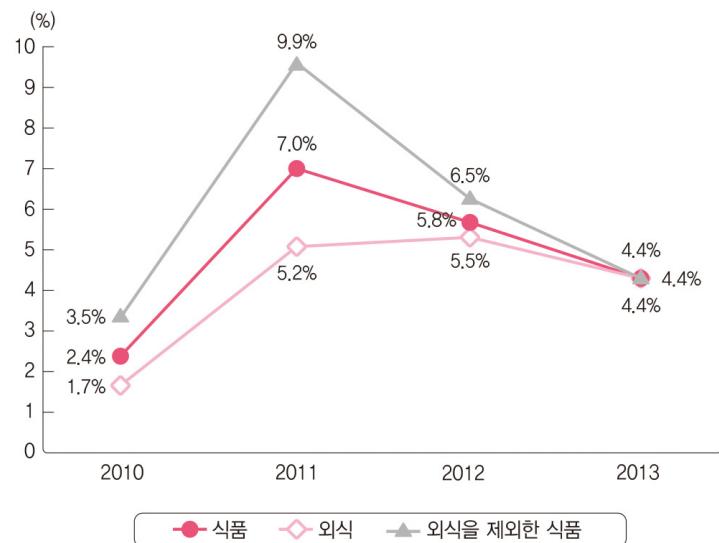
1) 2013 경제환경 및 2014 전망, HKSAR



2. 소비자 물가지수 전개

- 2010년, 2011년 연평균 22%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홍콩 소비자의 부담이 커서 홍콩 정부가 중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였으나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소비재의 가격이 안정을 되찾고 있고, 더불어 내국 소비자의 부담도 줄어 들고 있다.
- 이처럼 전반적으로는 가격안정성이 회복되고는 있으나, 홍콩정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평균 3.5%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 식품 가격은 지난 수년간 상당한 압력을 받았으나, 2011년도에 최고점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0~2013년도 홍콩 소비자물가지수 전개 ■



출처: 2011~2013 소비자물가지수 연례 보고서, 조사 및 통계국, HKS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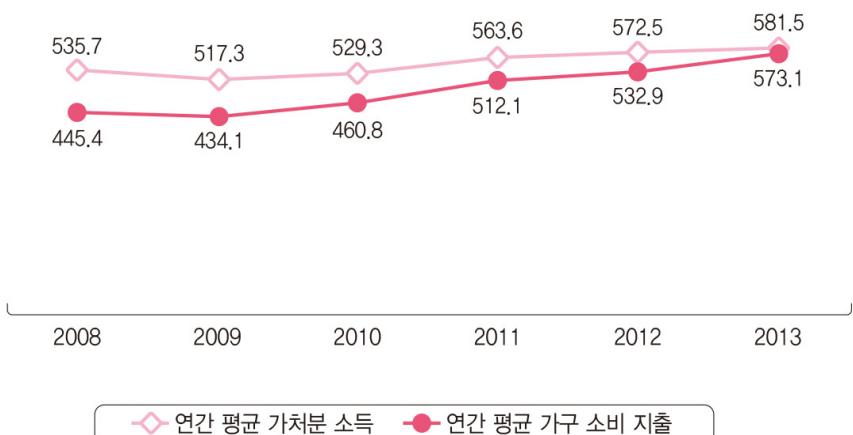
2) 2013 경제 환경 및 2014 전망, HKSAR

3. 평균 가처분소득 및 지출

- 홍콩의 가구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2008년의 535.7백만 HKD에서 2013년에는 581.5백만HKD로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였다.
- 지난 5년간 홍콩은 높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 홍콩은 정부의 조세정책 및 복지제도 등을 통하여 소득격차를 크게 감소시켰다. 또한 정부의 주택,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에서의 정책들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중저소득 가구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홍콩의 근로 및 노동계층의 소비구매력이 증가하였고 이를 식품구매에 사용하고 있어 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2008년의 445.4백만 HKD에서 2013년에는 573.1백만HKD로 연평균 5.2% 성장하고 있다.

■ 2008~2013년도 가구당 평균 가처분소득 및 지출 전개 ■

(단위: 백만HK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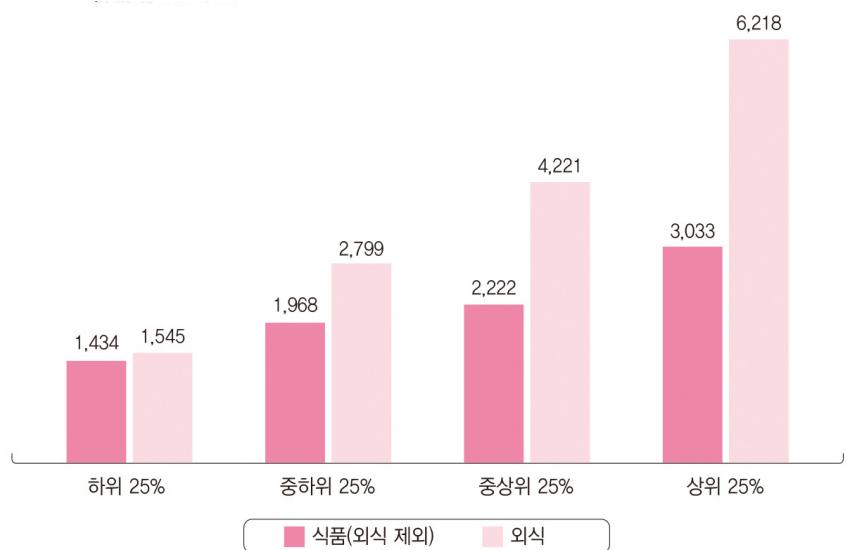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UN 통계국



- 2009/10년도의 가구 지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의 평균 27%, 금액으로는 5,859HKD가 식품구매에 지출 되었고, 동 비율은 지난 1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식품에 대한 지출을 외식과 비외식분야로 분류해 보면, 식품비 지출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외식과 비외식분야에 대한 지출규모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식품비 지출이 높은 집단은 외식지출금액이 비외식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동 결과는 포장식품 및 음료에 대한 수요 및 소비 증가 현상과 일치한다. 소득의 증대 및 근로시간의 장기화 등이 편리한 대안 식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은 외식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년도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간 평균 식품비 지출 ■

(단위: HKD)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2009/10년도 가구 지출 조사 결과

Ⅱ. 과일 및 채소시장 요약

1. 과일 및 채소시장 개요
2. 수입산 과일 및 채소에 관한 규정 및 정책
3. 과일 및 채소의 안전 과제
4. 한국산 수입 과일 및 채소에 관한 시장개요
5. 국가별 수입산 과일 및 채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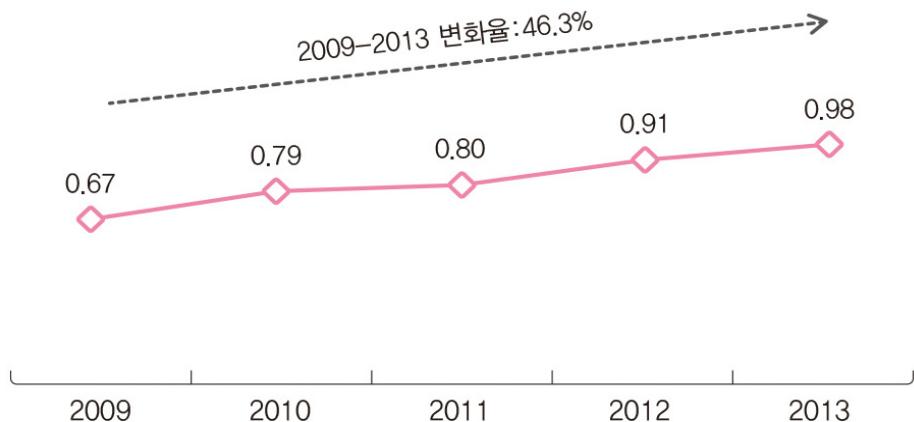
1. 과일 및 채소시장 개요

- 2013년도에 홍콩의 식품 수입총액은 약 219억USD이었다. 이중 과일과 채소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약 9.6%에 해당하는 21억USD였다.

▷ 평균 도매가격

■ 신선 채소 평균 도매가격 ■

(단위: USD/Kg)



주: 신선 채소 평균 도매가격은 꽃양배추 및 양배추의 도매가격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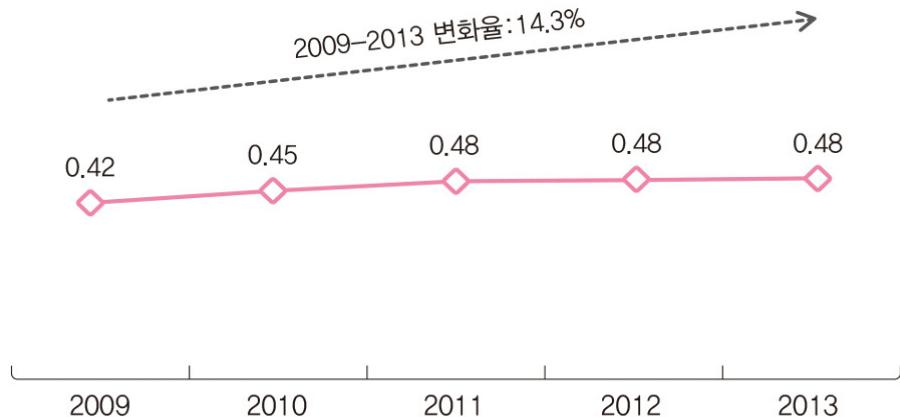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신선채소 도매가격 평균 상승률 : 46.3%

('09년 0.67USD/Kg → '13년 0.98USD/Kg)

| 신선 과일 평균 도매가격 |

(단위: USD/개)



주: 신선 과일 평균 도매가격은 사과 및 오렌지의 도매가격을 임.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신선 과일 도매가격 평균 상승률 : 14.3%
('09년 0.42USD/개 → '13년 0.48USD/개)



- 홍콩의 신선과일 및 채소의 도매가격이 상승한 주요 원인은 노동비용이 상승했기 때 문인데, 홍콩의 노동비용은 2009년 7,100HKD/월에서 2013년에는 9,400HKD/월로 약32.4% 상승하였다. 또한, 임대비용의 상승도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데, 산업지역 임대료는 2009년 70.0HKD/m²에서 2013년 103.0HKD/m²로 약 47.1% 상승하였다. 더불어, 홍콩달러는 중국 RMB 및 한국 KRW에 대비하여 모두 평가절하되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각기 9.3% 및 14.4% 감소하였다.

▷ 공급물량

■ 신선 과일 공급물량 ■

(단위: 백만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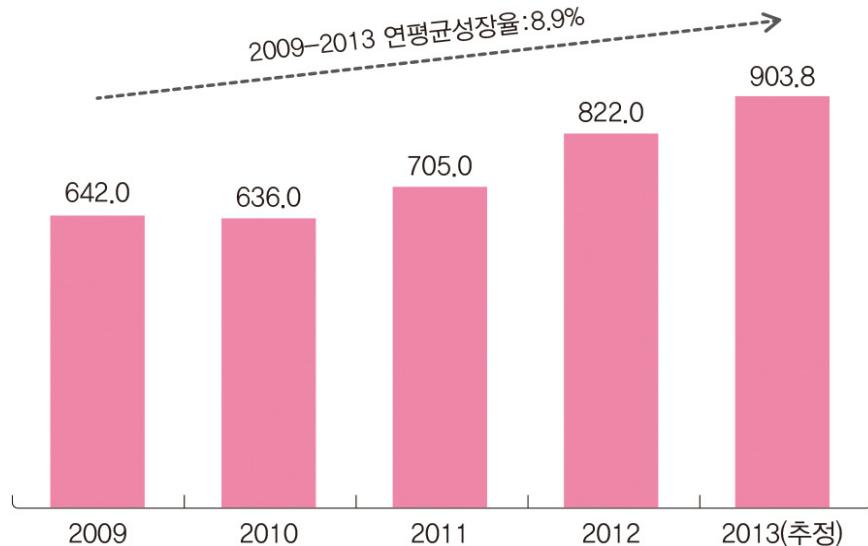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신선 과일의 공급은 2009년도의 541.8백만Kg에서 2013년도에 628.9백만Kg으로 증가되어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신선 채소 공급물량 |

(단위: 백만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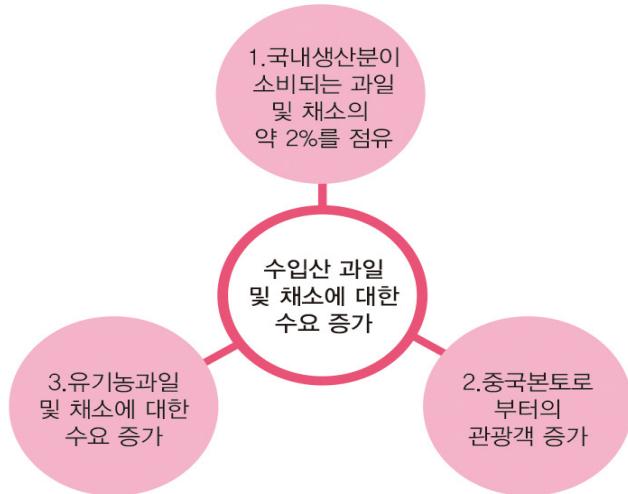
주: 2013년도 추정치는 농림, 수산 및 환경보호국의 신선채소 일일공급물량에 기초하여 산정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신선 채소의 공급은 2009년도의 642.0백만Kg에서 2013년도에 903.8백만Kg으로 증가되어 연평균 8.9% 성장하였다.
- 홍콩의 신선과일 및 채소시장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인구증가('09년 6.98백만명 → '13년 7.22백만명)와 관광객 수 증가('09년 29.6백만명 → '13년 54.3백만명)를 들 수 있다.

▶ 수요 영향 요인

■ 수입산 과일 및 채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 요인 1 : 과일 및 채소의 국내생산분은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전체 수요의 약 2.0%만을 충당

- 홍콩은 가파른 비탈지역이 많아, 가용 토지가 제한되어 농업 생산규모가 제한적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과일 및 채소 재배에 이용되는 면적은 약 2.95 km^2 으로, 홍콩 전체 면적의 약 0.3%에 불과하며, 홍콩 내 과일 및 채소 생산분은 전체 과일 및 채소 소비의 약 2.0%만을 충당하는 수준이다.

◆ 요인 2 : 중국 본토로부터의 관광객수 증가

- 중국 본토로부터의 관광객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홍콩을 방문한 중국 본토의 관광객수는 40.7백만명 (연평균 16.7% 증가) 으로 전체 방문자수의 75.0% 를 점유하여 최대의 방문자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2013년 내국관광과 관련된 총 관광지출은 440억USD, 단기 방문자들의 일인당 지출은 1,041.4USD에 달했다.
-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수의 증가는 식품소비의 성장동력이 되어, 수입산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요인 3 : 유기농 식품 수요 증가

- 2013년을 기준으로 홍콩에는 유기농 농법³⁾을 사용하는 약 451개의 유기농 농장이 있다.
- 농림, 수산 및 환경보존국은 유기농 농업 전환 지원서비스(과거 유기농 농업 전환 계획)에 의거, 재래농법의 농민들이 유기농농법으로 전환하도록 기술자문 및 마케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 및 정부의 지원제도 등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등 서비스에 가입한 농가는 203개에 이른다.
- 2011년에 홍콩 유기농지원센타에서 실시한 소비자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응답자의 60%는 유기농 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기농 구매자 중 30%는 일주일에 1회 이상, 3%는 매일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고 유기농 제품 구매자 중 월 500HKD 이상을 유기농 제품에 지출하는 구매자는 2008년 9%에서 2011년 1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는 농가와 구매량의 증가는 홍콩내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수입산 유기농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유기농 농법은 생태다양성, 생태주기 및 토양 생태활동 등의 농업환경을 증진시켜주는 전체적 생산시스템이다. 유기농 농법은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외부의 유입물보다는 관리활동의 사용을 권장한다. 시스템의 기능들을 충족하기위해 합성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지역의 문화적, 생태적, 기계적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수입산 과일 및 채소에 관한 규정 및 정책



- 20세기 들어 국제식품교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업영농에의 의존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 살충제 및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가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살충제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식품의 수입 및 수출 등 무역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국제 식품 교역을 감독하는 기준으로 UN의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는 “Codex Alimentarius (Codex)”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곡물별로 허용되는 살충제의 잔류량이 규제된다. 허용되는 잔량은 최대 잔류허용치(Kg당 허용되는 mg)로 표시된다.
- 그러나 Codex 기준은 현재 지침에 불과하며, 각국은 자체 살충제 규정, 요구조건 및 법적 허용치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보건 및 환경 관련기관들이 수입 및 자국생산 식품 모두에 대하여 최대잔류허용치(MRL)를 규정하는 책임을 가지며, 수입 및 자국생산 식품들이 정부에서 규정한 표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주의할 점은 각국의 MRL 허용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은 수입되는 국가의 규정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1) 홍콩의 신규 살충제 규정

- 2014년 8월 이전까지 홍콩은 식품의 살충제 잔류량을 규제하는 특정 하위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일반적인 식품 안전지침은 공공보건 및 도시서비스 조례(Cap. 132)의 “인간섭취를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들은 건강하고, 완전하고, 인간이 섭취가 가능해야한다”라는 문구에 의존하였다.
- 공공보건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콩 식품안전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살충제 잔류량 및 식품규정 (Cap.132 CM)은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동 규정은 식품의 살충제 잔류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홍콩 및 국제 살충제잔량 규정들을 통일시켜나가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홍콩의 “살충제 잔류량 및 식품규정”(Cap.132 CM)은 Codex Alimentarius 위원회(Codex), 중국, 그리고 미국 및 태국을 포함한 홍콩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이 제안하는 표준을 기초로 하였다.
- 동 살충제 잔류량 및 식품규정(Cap. 132 CM)은 과일 및 채소 뿐만 아니라 육류, 가금류 및 우유에도 적용되며, 최대 잔류량 허용치(MRL) 이외에 특정 살충제(360 개 종류, 7,000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요인 최대 잔류량 허용치(EMRL)도 규제 한다. 외부요인 최대 잔류량 허용치(EMRL)는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살충제 사용이 금지 되었으나 곡물상태에서 잔존하는 살충제 등의 잔류량에 대한 최대 허용치를 의미한다.



- 새로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식품 및 환경 위생국(FEHD)에 의해 강제가 되고 있고, 식품안전센타(CFS)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시료는 수입 시점, 도매시점 및 소매시점 모두에서 수집되며, 시험방법으로 미생물학시험 및 화학분석방법 등이 사용된다.
- 살충제 잔류량 및 식품규정(Cap.132 CM)이 발효된 현시점에서, 규정에 표기된 살충제 잔류량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그리고 규정에 명시 되지 않는 살충제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 등을 수입, 제조 및 판매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 된다.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0,000HKD의 벌금형 및 6개월의 감옥형이 선고될 수 있다.

2) 한국의 살충제 규정

- 한국의 살충제규정은 살충제 관리법안으로, 1957년 제정이 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1996년까지 주무관청은 농림부(MAF)로서 살충제의 등록 및 살충제 관련 사안 등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1996년 12월 이후, 농촌진흥청(RDA)이 살충제의 등록, 안전사용 표준 및 살충제의 통보 등에 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 식품의 살충체 잔류량과 관련해서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가 최대 잔류량 허용치(MRL)를 규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Codex의 MRL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기준을 설정한다. 2010년 12월 현재, 419개의 농업용 살충제와 관련한 MRL이 규정 되어 있다. 여러 살충제에 관한 KFDA의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KFDA의 MRL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Codex MRL이 적용이 된다.
- 살충제 잔류량 감시는 농업과학기술원(NIAS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PQMS) 및 KFDA 등에 의해서 실시되며, 잔류량 감시 대상은 주로 쌀, 신선 채소 및 과일 등이다.
- KFDA는 수입품의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51개의 화학 다중-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3. 과일 및 채소의 안전 과제

- 홍콩의 과일 및 채소의 안전에 관한 심각한 우려는 2006년에 시작되었다. 2006년 4월에 Greenpeace는 홍콩의 슈퍼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염된 채소들을, 2006년 6월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수입된 오염된 과일 및 채소를 고발하였다.
- 2007년에 Greenpeace는 10개의 과일 및 채소樣本을 수거하여 시험한 결과 5개 품목이 고도의 유해 살충제에 오염이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중국에서 수입된 4개 제품에는 금지된 살충제인 메타미도포스(유기린계 화합물 살충제)가 검출이 되었다고 밝혔다. 감귤제품 1개 样本에서는 13가지의 살충제가 검출되기도 하였다.
- 2011년 1월에, 환경운동단체에서 홍콩의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 및 과일제품 18개 样本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样本에서 고도의 유해성 살충제를 포함한 38가지의 살충제가 검출되었다.
- 2013년 중반에는 NPC 특수조사집단에서 중국 토양의 약 30%가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홍콩 내의 중금속 오염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에서 2013년 1월에 걸쳐 117개의 채소 样本들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样本은 재래시장, 슈퍼, 농민시장, 농업 및 수산업 장터, 유기농 전문점 등에서 수거되었다. 시험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및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및 일반 채소의 중금속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 수년간 많은 식품안전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홍콩정부는 2014년 8월에 과일, 채소 및 육류의 최대 잔류량 허용치(MRL)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살충제 규정을 발효하였다.

4. 한국산 수입 과일 및 채소에 관한 시장개요

1) 한국산 과일 및 채소 상위 10개 품목

■ 2013년도 홍콩유통 한국산 과일 및 채소 금액별 상위 10개 품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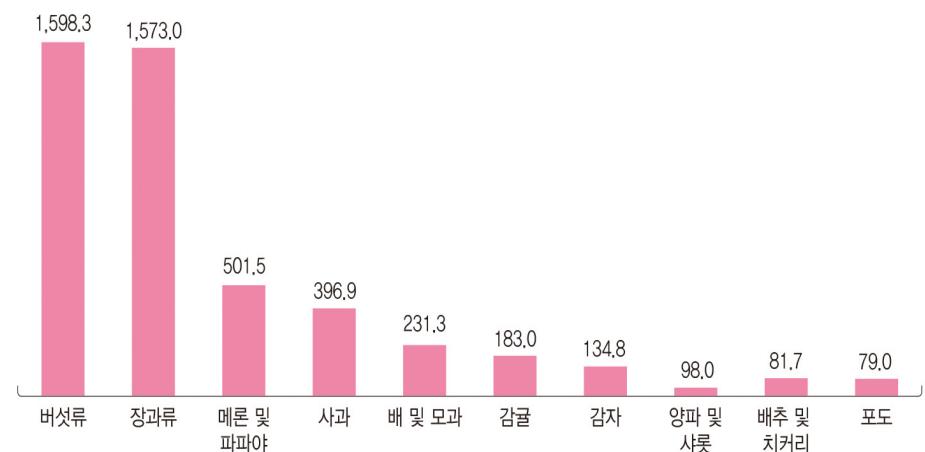
(단위: 천, USD)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2013년도 홍콩유통 한국산 과일 및 채소 물량별 상위 10개 품목 ■

(단위: 천, KG)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2013년도의 한국산 과일 및 채소는, 홍콩에 수입된 전체 과일 및 채소에서, 금액으로는 1.6%, 물량으로는 0.3%의 점유율을 보였다.



- 홍콩에 수입되는 한국산 과일 및 채소 중에서, 장과류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홍콩에 수입되는 장과류 전체 중 물량기준으로는 2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산 신선제품 중 2위는 벼섯으로, 금액으로는 2위, 물량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다.
- 2013년도에 감자는 금액으로는 3위, 물량으로는 7위를 기록하였으며 메론 및 파파야는 금액으로는 4위, 물량으로는 3위를 기록하였다.

◆ 한국산 장과류

- 한국산 장과류는 2013년도에 물량 1,573천Kg, 금액으로는 12.778백만USD가 수입되어, 평균 수입단가는 8.1USD/Kg를 기록하였다. 매향딸기는 홍콩의 슈퍼 및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 홍콩에서 한국산 장과류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산은 2011년의 일본 지진 이후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산 장과류는 품질이 일본산과 유사하면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 한국산 버섯류

- 2013년도에 수입된 한국산 버섯류는 물량 1.598백만Kg, 금액 3.146백만USD를 기록하여, 평균 수입단가는 약 2.00USD/Kg을 기록하였다. 팽이버섯 및 새송이버섯 등은 홍콩의 중국식 볶음(stir-fry) 및 찌개(hotpot) 요리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로, 슈퍼 및 소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가능하다.
- 홍콩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버섯류는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평균단가에서는 일본 제품이 가장 높다. 홍콩에 주로 수입이 되는 한국산 버섯류 제품은 새송이버섯 및 팽이버섯 제품들이다.



-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식품 수입업자에 따르면, 홍콩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산 버섯류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산 버섯류는 품질면에서 일본 제품과 큰 차이가 없으며, 도매가격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약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한국산 버섯류 제품에 대하여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의 기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국산 메론

- 머스크 메론, 수박 등을 포함한 한국산 메론제품은 높은 당도를 이유로 경쟁 제품인 중국, 이집트산에 비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 한국산 포도



- 홍콩에서 인기있는 한국산 포도 품종은 교호, 캠벨, 텔라웨어, 화성 등으로 특히 교호 및 화성 품종의 인기가 높다. 한국산 포도제품은 2000년대 초반에 홍콩의 과일 및 채소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 수입된 한국산 포도제품의 30% 이상은 화성 품종의 포도제품이다. 홍콩 소비자의 포도 구입 기준은 당도, 산도 및 숙성도 등이다.

◆ 한국산 감귤

- 2013년 기준, 한국은 세계 10대 감귤 생산국가이다. 홍콩내 한국산 감귤제품은 음력 설을 중심으로 소비가 집중되며, 감귤은 전통적으로 풍요 및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홍콩의 음력 설 기간에 설의 분위기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산 감귤이 선물용으로 홍보된다.

◆ 한국산 배추 및 치커리

-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한국산 배추, 치커리, 양배추는 꾸준한 매출세를 유지하고 있다. JUSCO 홍콩의 경우, 연례적인 한국식품전을 개최하여 과일 및 채소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홍보하고 있다.



2) 주요 유통경로 분석

- 홍콩은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한국산 과일 및 채소를 취급하는 많은 수입업자들이 있다. 주요 수입 및 유통경로는 한국의 농가 혹은 유통업자들과 직거래를 하는 홍콩의 슈퍼체인점, 백화점 등이 있다. 이외에도 홍콩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 도매업자 및 유통업자, 그리고 카우룽의 야우마테이 과일도매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유통업자들도 있다. 홍콩에 한국산 과일 및 채소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는 홍콩 정부의 식품 및 환경 위생국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 2014년 8월 현재, 홍콩에 등록된 신선과일 및 채소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3,626 업체에 이르고 있다. 등록된 유통업자 및 도매업자의 목록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 목록 (<https://www.fics.gov.hk/ie/tr/traderrecord/tray/index.htm>)
- 호주 및 북미 등에 비해, 홍콩과 한국 사이의 운송기간은 매우 짧은 편으로, 신선과일 및 채소의 운송도 항공편이 아닌 해상 컨테이너 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운송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소매업자, 도매업자, 유통업자들은 한국산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산 과일 및 채소의 수입에 호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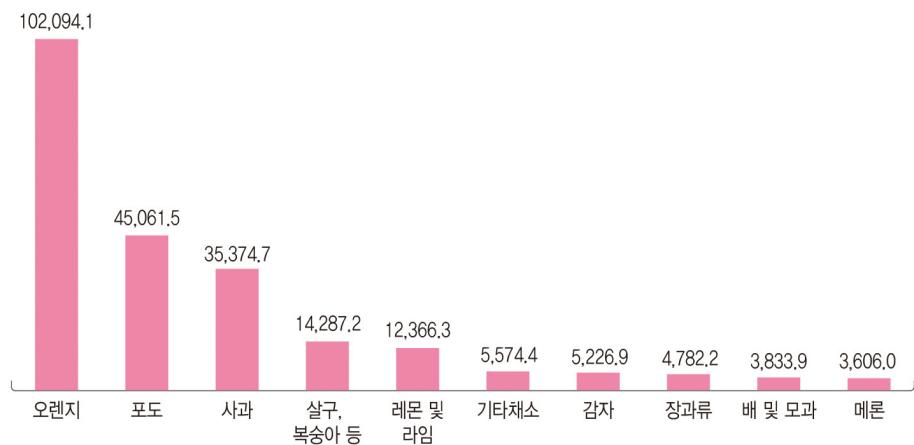


5. 국가별 수입산 과일 및 채소 비교

1) 미국

■ 2013년도 미국산 과일 및 채소 상위 10개품목 (물량기준) ■

(단위: 천, Kg)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2013년도의 미국산 제품 중 물량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입된 과일은 오렌지로, 총 물량 102.094백만Kg 및 110.615백만USD를 기록하였다. 평균 수입단가는 약 1.08USD/Kg이다.
- 그 다음은 포도로, 총 물량 45.061백만Kg, 금액은 126.465백만USD 수입되었고, 수입 평균단가는 2.81USD/Kg이다.
- 세번째로 많이 수입된 품목은 사과로, 총 물량 35.374백만Kg 및 48.084백만 USD를 기록하여, 수입 평균단가 1.36USD/Kg이다.
- 수입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수입금액에서 중요한 살구, 복숭아는 총금액 61.770백만USD, 물량 14.287백만Kg 수입되었고, 평균단가는 4.3USD/Kg를 기록하였다.

2) 일본

■ 2013년도 일본산 과일 및 채소 상위 10개품목 (물량기준) ■

(단위: 천, Kg)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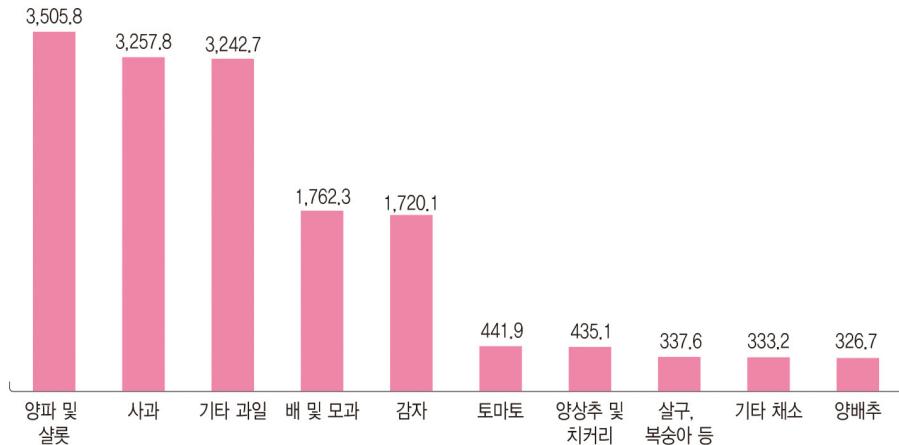
- 2013년도 일본산 1위 제품은 사과로서, 총 물량 2.201백만Kg, 금액 8.770백만USD 수입되었으며, 평균단가는 3.98USD/Kg이다.
- 3위는 감자 등과 같은 구근류로, 총 물량 694.9천Kg, 금액 2.446백만USD를 기록하여, 수입 평균단가는 3.52USD/Kg이다.
- 사과 이외 금액기준으로 두번째 수입이 많이 된 살구, 복숭아는 총 4.025백만USD 수입되었고, 수입 평균단가는 9.1USD/Kg이다.
- 금액 기준 3위는 3.641백만USD 수입된 포도로, 수입 평균단가는 13.0USD/Kg이다.



3) 유럽 연합 (EU)

■ 2013년도 EU산 과일 및 채소 상위 10개품목 (물량기준) ■

(단위: 천, Kg)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2013년도 EU산 1위 제품은 양파 및 샬롯으로 총 물량 3.505백만Kg, 금액 2.675 백만USD 수입되었고, 평균단가는 0.76USD/Kg를 기록하였다.
- 2위는 사과로 총 3.257백만Kg, 금액 4.757백만USD 수입되었으며, 수입 평균단가는 1.46USD/Kg이다.

4) 중국

■ 2013년도 중국산 과일 및 채소 상위 10개품목 (물량기준) ■

(단위: 천, Kg)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Ipsos 조사 및 분석

- 2013년도 중국산 1위 제품은 양배추 및 유사 십자화과 채소로 총 물량 587.410백만Kg, 금액 226.541백만 USD 수입되었으며, 평균단가는 0.39USD/Kg이다.
- 이외에, 수입 물량별 3위 제품은 오렌지로, 총 물량 56.131백만 Kg, 금액 23.177백만USD를 기록하여, 수입 평균단가는 0.41USD/Kg이다.

Ⅲ. 살충제 규정의 비교

- 홍콩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과일 및 채소의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살충제의 최대 잔류량 허용치(MRL)의 비교분석은 다음과 같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홍콩 및 한국의 살충제 규정의 규제 정도에 대한 비교 및 한국산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출을 위한 과제 등을 기술하였다. 홍콩 정부의 “살충제 잔류량 및 식품 규정”(Cap.132 CM)은 2014년 8월에 발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비교표들은 한국의 과일 및 채소 수출업자들이 유념하여 참고할 부분이다.
- 가장 최신의 종합된 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한으로, 나열된 MRL이 모두 적용된다 고 판단하기 보다는, MRL과 관련한 국가의 구체적 규정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배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배 제품 관련 49개 살충제 중, 4개 항목에서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와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음 네 종류의 살충제의 경우, 한국측의 MRL이 홍콩측의 MRL에 비하여 높게 설정 된 것으로 나타난다.

배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Deltamethrin	0.1	0.2	0.1	0.5	0.5
Methomyl	0.3	4.0	0.02	3.0	2.0
Triflumizole	0.5	0.5	0.5	2.0	1.0
Fludioxonil	0.7	5.0	5.0	5.0	1.0

출처: 식품안전센타, HKSAR; 국제 최대잔류량허용수준 데이터베이스(2014.8월)

- 한국 수출업체는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배 제품 수출의 경우 위의 4개 살충제 잔류량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권장된다.
- 나머지 45개 살충제의 경우, 홍콩의 MRL은 한국의 MRL과 차이가 없다. 배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MRL 제한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과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사과 관련 49개 살충제 중 3개 항목에서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음 세 종류의 사과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경우, 한국측의 MRL이 홍콩측의 MRL에 비하여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과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Simazine	0.2	0.2	0.01	0.2	0.25
Pyridaben	0.5	0.5	0.5	1.0	1.0
Triflumizole	0.5	0.5	0.5	2.0	1.0

출처: 식품안전센타, HKSAR; 국제 최대잔류량허용수준 데이터베이스(2014.8월)

- 한국 수출업체는 대(對) 홍콩 사과 수출 시, 위의 3개 살충제 잔류량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권장된다.
- 나머지 46개 살충제의 경우, 홍콩의 MRL은 한국의 MRL과 차이가 없다. 사과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MRL 제한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포도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포도제품 관련 112개 살충제 중, 22개 항목에서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음 포도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경우 한국측의 MRL이 홍콩측의 MRL에 비하여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포도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Penoxsulam	0.01	0.01	0.01	0.01	0.1
Abamectin	0.02	0.02	0.01	-	0.05
Flumioxazin	0.02	0.02	0.05	0.1	0.1

포도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Forchlorfenuron	0.03	0.03	0.05	0.1	0.05
Diuron	0.05	0.05	0.01	0.05	1.0
Carbon disulfide	0.1	0.1	5.0	–	5.0
Bifenthrin	0.2	0.2	0.2	2.0	0.5
Simazine	0.2	0.2	0.2	0.2	0.25
Spirodiclofen	0.2	2.0	2.0	2.0	1.0
Methomyl	0.3	5.0	0.02	5.0	1.0
Tetraconazole	0.5	0.2	0.5	0.5	2.0
Ethepron	1.0	2.0	0.7	1.0	2.0
Kresoxim methyl	1.0	1.0	1.0	15.0	5.0
Myclobutanil	1.0	1.0	1.0	1.0	2.0
Fludioxonil	2.0	2.0	5.0	5.0	5.0
Mandipropamid	2.0	1.4	2.0	3.0	5.0
Cyprodinil	3.0	3.0	5.0	5.0	5.0
Pyrimethanil	4.0	5.0	5.0	10.0	5.0
Metrafenone	4.5	4.5	5.0	–	5.0
Dicloran	7.0	10.0	0.1	7.0	10.0
Propargite	7.0	10.0	7.0	7.0	10.0
Fosetyl aluminium	10.0	10.0	100.0	70.0	25.0

출처: 식품안전센타, HKSAR; 국제 최대잔류량허용수준 데이터베이스(2014.8월)

- 한국 수출업체는 홍콩을 대상으로하는 포도제품 수출의 경우 위의 22개 살충제 잔류량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권장된다.
- 나머지 90개 살충제의 경우, 홍콩의 MRL은 한국의 MRL과 차이가 없다. 포도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MRL 제한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메론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메론 제품 관련 23개 살충제 중, 2개 항목에서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음 메론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경우, 한국측의 MRL이 홍콩측의 MRL에 비하여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메론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Fenpyroximate	0.05	0.1	0.05	1.0	0.1
Dicofol	0.2	2.0	0.2	0.2	1.0

출처: 식품안전센타, HKSAR; 국제 최대잔류량허용수준 데이터베이스(2014.8월)

- 한국 수출업체는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메론 제품 수출의 경우 위의 2개 살충제 잔류량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권장된다.
- 나머지 21개 살충제의 경우, 홍콩의 MRL은 한국의 MRL과 차이가 없다. 메론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MRL 제한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딸기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딸기 제품 관련 58개 살충제 중, 8개 항목에서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음 8종류의 딸기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경우, 한국측의 MRL이 홍콩측의 MRL에 비하여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딸기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Abamectin	0.02	0.05	0.1	0.02	0.1
Flumioxazin	0.07	0.07	0.05	0.1	0.1
Chlorpyrifos (0.3mg)	0.3	0.2	0.2	0.2	0.5
Acequinocyl	0.4	0.5	0.01	2.0	1.0
Hexythiazox	0.5	6.0	0.5	2.0	1.0
Novaluron	0.5	0.45	0.5	2.0	1.0
Pyraclostrobin	0.5	1.2	1.5	2.0	1.0
Boscalid (3mg)	3.0	4.5	10.0	15.0	5.0

출처: 식품안전센타, HKSAR; 국제 최대잔류량허용수준 데이터베이스(2014.8월)

- 한국 수출업체는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딸기제품 수출의 경우 위의 8개 살충제 잔류량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권장된다.
- 나머지 50개 살충제의 경우, 홍콩의 MRL은 한국의 MRL과 차이가 없다. 딸기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MRL 제한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자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감자제품 관련 74개 살충제 중, 14개 항목에서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다음 감자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경우, 한국측의 MRL이 홍콩측의 MRL에 비하여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감자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Mandipropamid	0.01	0.01	0.01	0.02	0.1
Fipronil	0.02	0.03	0.01	0.01	0.01
Flumioxazin	0.02	0.02	0.05	0.02	0.1
Pymetrozine	0.02	0.02	0.02	0.1	0.2
Pyraclostrobin	0.02	0.04	0.02	0.02	0.5
Trifloxystrobin	0.02	0.04	0.02	0.04	0.02
Zoxamide	0.02	0.06	0.02	0.06	0.2
Propargite	0.03	0.1	0.01	0.1	0.1
Cymoxanil	0.05	0.05	0.05	2.0	0.1
Dimethomorph	0.05	0.05	0.05	0.1	0.1
Phosmet	0.05	0.1	0.05	0.05	0.05
Trifluralin	0.05	0.05	0.01	0.2	0.05
Flonicamid	0.2	0.2	0.1	0.3	0.3
Dicloran	0.25	0.25	0.1	0.3	0.25

출처: 식품안전센타, HKSAR; 국제 최대잔류량허용수준 데이터베이스(2014.8월)

- 한국 수출업체는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감자제품 수출의 경우 위의 14개 살충제 잔류량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권장된다.



- 나머지 60개 살충제의 경우, 홍콩의 MRL은 한국의 MRL과 차이가 없다. 감자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MRL 제한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추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상추제품 관련 58개 살충제 중, 2개 항목에서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다음 상추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경우, 한국측의 MRL이 홍콩측의 MRL에 비하여 높게 설정 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추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Fluazinam	0.02	0.02	0.05	0.1	0.05
Methomyl	0.2	5.0	0.05	5.0	5.0

출처: 식품안전센타, HKSAR; 국제 최대잔류량허용수준 데이터베이스(2014.8월)

- 한국 수출업체는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상추제품 수출의 경우 위의 2개 살충제 잔류량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권장된다.
- 나머지 56개 살충제의 경우, 홍콩의 MRL은 한국의 MRL과 차이가 없다. 상추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MRL 제한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귤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감귤제품 관련 16개 살충제 중, 2개 항목에서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3.9: 감귤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경우 한국측의 MRL이 홍콩측의 MRL에 비하여 높게 설정 된 것으로 나타난다.

감귤제품에 적용되는 살충제	홍콩 MRL (mg/kg)	미국 MRL (mg/kg)	EU MRL (mg/kg)	일본 MRL (mg/kg)	한국 MRL (mg/kg)
Deltamethrin	0.05	0.05	0.05	1.0	0.5
Difenoconazole	0.2	0.6	0.1	0.6	1.0

출처: 식품안전센타, HKSAR; 국제 최대잔류량허용수준 데이터베이스(2014.8월)

- 한국 수출업체는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감귤제품 수출의 경우 위의 2개 살충제 잔류량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권장된다.
- 나머지 14개 살충제의 경우, 홍콩의 MRL은 한국의 MRL과 차이가 없다. 감귤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MRL 제한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에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벼섯

- 홍콩의 식품안전센타의 목록에 있는 벼섯제품 관련 8개 살충제 중, 홍콩의 MRL이 한국의 MRL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은 없었다.
- 따라서, 벼섯류와 관련하여 홍콩의 MRL은 한국의 그것과 동일하다. 8개 살충제를 사용한 벼섯제품은 한국에서 유통이 되는 제품들로 가정되기 때문에, 홍콩으로 수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한국산 과일 및 채소의 과제 및 방안

- 다음 표에는 2013년도에 EU, 미국, 중국, 일본 및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3개 과일 품목의 수입가격이 비교되어 있다. 비교대상 5개국 중 중국산 사과, 장과류 및 배 등의 수입가격이 가장 낮고, 비교대상 5개국 중 일본산 사과, 장과류 및 배 제품의 수입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경우, 2013년도에 한국산 사과의 평균 수입단가는 EU, 미국, 중국 등의 평균 수입단가를 상회하였으며, 한국산 배의 평균 수입단가는 EU 및 미국의 평균 수입단가와 유사하였다. 한국산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수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EU, 미국산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입단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신선과일 수입단가 비교 (USD/kg)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사과	1.5	1.4	0.7	4.0	2.2
배	1.6	1.8	0.5	4.6	1.7
장과류	9.1	2.0	0.9	22.4	8.1

- 따라서, 한국산 신선과일 및 채소의 수출업자들은 일본산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 신선과일 및 채소의 수출업자들은, 일본 수출업자들이 특화시킨, “선물용 과일”제품으로 제품구성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 일본의 경우, 수박, 메론, 후지사과 등을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 구별, 형성 등의 공정에서, 선호되는 외관 및 특성을 갖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선물용 과일”的 가격은 동일 분류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외에도 장기적 수익성 및 제품구성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 권장된다.
- 또한, 한국의 신선과일 및 채소 수출업자들에게 신선 채소 보다는 신선 과일의 수출에 주력할 것이 권장된다. 2013년도의 홍콩 신선과일 수입금액은 신선채소 수입금액의 4.7배를 기록하였다.

V. 한국산 과일 및 채소의 시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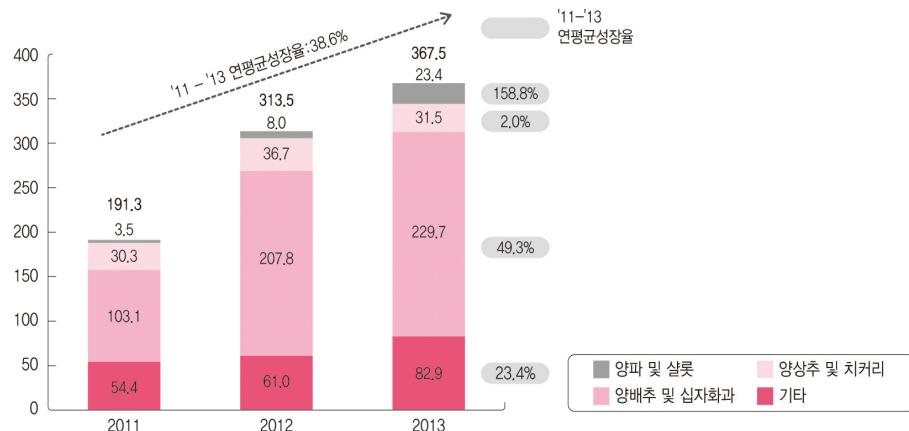
1. 전체 시장가치 및 구성내용 정보
2. 소비자 선호도
3. 유통경로

1. 전체 시장가치 및 구성내용 정보

- 2013년도 홍콩의 과일 및 채소 총 수입금액은 약 21억USD로, 이 중 과일이 17.218억USD, 채소가 3.675억USD로 각각 집계 되었다.
- 일반적으로, 수입 과일 및 채소는 그 유형 및 유통경로에 따라, 수입가격의 2~6배에서 소매가격이 결정이 된다.

■ 홍콩의 신선채소 총 수입금액 ■

(단위: 백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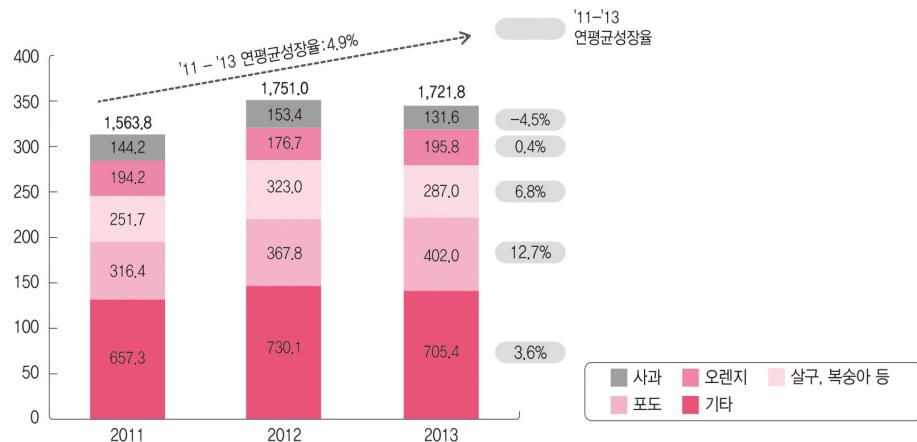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홍콩 물품교역통계 수입내용 기록

- 홍콩의 신선채소 수입금액은 2011년도 1.913억USD에서 2013년도에는 3.675억USD를 기록하여, 연평균 38.6%의 성장률을 보였다.
- 2013년도에 수입 신선채소 중에서 양배추 및 십자화과 제품이 2.297억USD, 62.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최대 수입규모를 보였다. 상추 및 치커리 제품이 31.5백만USD, 시장점유율 8.6%로 2위를, 파 및 살롯이 23.4백만USD, 시장점유율 6.4%로 3위를 기록하였다.



| 홍콩의 신선과일 총 수입금액 |

(단위: 백만, USD)



출처: 조사 및 통계국, HKSAR, 홍콩 물품교역통계 수입내용 기록

- 홍콩의 신선과일 수입금액은 2011년도의 15.638억USD에서 2013년도에는 17.218억USD를 기록하여,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였다.
- 2013년도에 수입 신선과일 중에서는 포도제품이 총 금액 4.02억USD로 23.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신선과일 중 최대 수입규모를 보였다. 살구, 복숭아 제품이 2.87억USD, 시장점유율 16.7%로 2위를, 오렌지 제품이 1.958억USD, 시장점유율 11.4%로 3위를 기록하였다.

2. 소비자 선호도

- 홍콩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수입물량은 소비자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2013년도 최다 수입과일은 기타과일로 상품교역통계에 분류명시가 되지 않은 두리안, 스타푸르트, 리치가 속한다.

- 그 다음으로는 오렌지로 약 2,214억Kg이 수입되었다. 주요 원산지는 미국 및 중국으로, 전체 물량 중 46.1%는 미국에서, 30.9%는 중국에서 각기 수입되었다. 미국 제품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Sunkist 브랜드가 1986년 이전부터 홍콩시장에 진입하여 홍콩 소비자들 사이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통경로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 2013년도 최다 수입 채소는 양배추 및 유사 십자화과 채소로, 약 5,888억 Kg가 수입되었다. 이것은 홍콩의 양배추 및 십자화과 채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림수산 및 환경보존국에 따르면, 특히 꽃양배추, 상추, 백양배추, 중국 무 등의 구매량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 인구 요인

- 아동이 있는 가구는 과일 및 채소를 더욱 많이 소비할 확률이 높다. 혼자 사는 남성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과 또는 오렌지 등과 같은 과일을 구매하는 빈도가 높으며, 혼자 사는 여성은 균형된 식단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모두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 30세 이상의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로 과일 및 채소의 소비를 늘리고, 학생들은 학교 및 교재 등을 통한 홍보에 영향을 받아 과일 및 채소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





2) 계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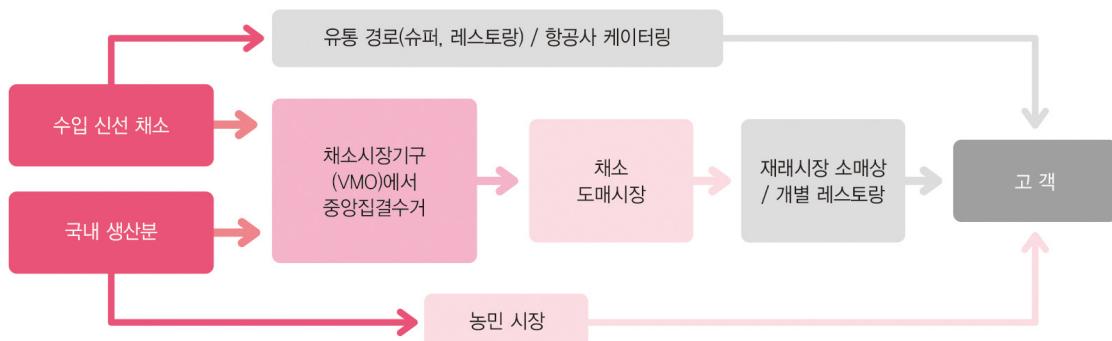
- 홍콩 소비자의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구매결정에는 시기 및 계절에 따른 선호도가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구체적 수요도 변화한다.
- 봄: 음력 설의 기간에는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감귤이 널리 소비된다. 감귤은 사무실 및 가정의 장식, 그리고 친구, 친지, 거래처 등에 선물로도 사용된다.
- 여름: 계절 과일인 수박, 메론, 망고, 복숭아, 리치, 두리안 등이 많이 소비된다. 채소의 경우 양배추 및 푸른잎 채소 이외에, 워터멜론, 실크박, 여주 등의 인기가 많다.
- 가을: 가을 계절 과일인 배, 자몽, 스타푸르트, 감 등이 널리 소비된다.
- 겨울: 겨울에 많이 먹는 찌개(hotpot) 요리에 사용되는 백양배추 및 푸른잎 채소가 널리 소비된다.

3) 유기농 요인

- 홍콩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콩 및 콩나물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중국 본토로부터 수입하는 채소의 살충제 잔류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제 및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2011년에 홍콩 유기농지원센타(HKORC) 5에서 발표한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정도가 유기농 제품의 구매경험이 있었다. 응답자의 30%는 주 1회 이상, 3%는 매일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제품에 매월 500 HKD 이상을 지출하는 구매자수는 2008년의 9%에서 2011년에는 16.2%로 증가하였다.

3. 유통경로

- 소비자들은 홍콩 전역에 걸쳐 슈퍼로 대표되는 현대적 유통점, 재래시장 및 국내생산분을 판매하는 농민시장 등의 3개 주요 유통경로를 통하여 신선 채소를 구매할 수 있다.
- 홍콩의 주요 소매체인들은 자체 창고로의 직접적이고 충분한 신선채소의 공급을 위하여 중국본토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공급자 및 농민들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개별 소매상 및 레스토랑들은 가격의 안정화 및 신선 채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채소 도매시장들과 정기적인 거래체제를 유지한다.
- 홍콩 정부는 수입되는 채소의 유통을 합리화하고 규제하기 위해 채소시장기구 (Vegetable Marketing Organization, VMO)를 비영리단체의 성격으로 설립하였다. VMO는 여러 장소에 보관된 수입 채소 및 국내생산분들을 수거하여 홍콩내의 여러 채소 도매시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그 외 회계, 살충제 잔류량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되는 채소에 대해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 2013년 현재, 홍콩에는 4개의 주요 채소 도매시장이 존재하며, 홍콩 정부 산하의 농림, 수산업 및 환경보존국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VMO는 이중 청사완에 위치한 홍콩 최대의 채소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 청사완 채소 도매시장의 처리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 1.282억USD이며, 홍콩내 219개 도매업자 및 1,610개 구매업자들과 거래를 하였다.
- 홍콩내 신선 과일의 유통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슈퍼 그리고 재래시장의 과일가게 및 식품점 등의 개별 소매상 등의 주요 2개 유통경로를 통하여 신선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



- 슈퍼 등 주요 유통경로들은 자체창고로의 직접적이고 충분한 신선과일의 공급을 위하여 중국본토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공급자 및 농민들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 개별 소매상 및 레스토랑들은 가격의 안정화 및 신선 과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과일 도매시장들과 정기적인 거래체제를 유지한다.

VI. 부 록

1. 과일 및 채소 수업업자 정보 및 교역 선호도
2. 홍콩내 과일 및 채소의 소매가격 비교

1. 과일 및 채소 수입업자 정보 및 교역 선호도

- 홍콩 수입업자들의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선호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홍콩에 소재한 3개 과일 및 채소 수입업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입업자들의 정보 및 교역선호도 등은 다음의 표에 기록되어 있다.

1) Dah Chong Hong

설립연도	1949
대상 고객	Dah Chong Hong은 홍콩 최대의 육류 수입상 중의 하나이다. 개별 레스토랑, 호텔체인, 슈퍼 등의 넓은 고객층 대응을 위해 다양한 가격 및 품질의 식품 제품을 취급한다.
수입 과일 및 채소 종류	한국산 배
한국산 과일에 대한 의견	Dah Chong Hong은 홍콩시장에서의 높은 인기에 따라 한국산 배는 수입하고 있지만, 타 국가산에 비해 과일과 채소 가격이 비싸 취급 물량과 품목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2) Lucky Ming Fresh Fruit Company Limited

설립 연도	2001
대상 고객	재래시장, 중국 레스토랑, 주점, 레스토랑, 클럽
수입 과일 및 채소 종류	일본: 장과류, 메론, 사과, 배, 포도 한국: 장과류, 메론, 사과, 배 미국: 장과류, 메론, 사과, 배, 오렌지
한국산 과일에 대한 의견	Lucky Ming Fresh Fruit Company Limited에 따르면, 한국산 과일은 계절성이 강해 인기있는 딸기, 복숭아 등의 연중 공급이 어렵다.

3) Hep Sing Fruits Limited

설립 연도	1990
대상 고객	대형 및 소형 레스토랑, 과일 및 채소 소매상, 재래시장
수입 과일 및 채소 종류	일본: 장과류, 메론, 사과, 배, 포도 한국: 장과류
한국산 과일에 대한 의견	Hep Sing Fruits Limited에 따르면,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 등지의 산딸기를 취급하는데, 한국산은 일본산 다음으로 인기가 좋지만 연중생산이 되지 않아 11월~4월 사이에만 공급할 수 있다.

2. 홍콩내 과일 및 채소의 소매가격 비교

1) 소매 형태

소매 형태	사진
Citysuper	
Gourmet Supermarket	

2) 장과류

사진	원산지	소매 가격	구매 장소	종류	사진촬영 일자
	아르헨티나	USD \$2.77/100g	Gourmet Supermarket	블루베리	3/10/2014
	호주	USD \$4.63/100g	Citysuper	블루베리	3/10/2014
	미국	USD \$1.13/100g	Gourmet Supermarket	딸기	3/10/2014

3) 버섯류

사진	원산지	소매가격	구매장소	종류	사진촬영 일자
	뉴질랜드	USD \$2.37/100g	Gourmet Supermarket	양송이 버섯	3/10/2014



사진	원산지	소매가격	구매장소	종류	사진 촬영일자
	일본	USD \$1.54/100g	Gourmet Supermarket	일본 만가닥 버섯	3/10/2014
	대만	USD \$1.28/100g	Gourmet Supermarket	표고 버섯	3/10/2014

4) 메론

사진	원산지	소매가격	구매장소	종류	사진촬영 일자
	한국	USD \$4.61/개	Gourmet Supermarket	머스크 메론	3/10/2014

사진	원산지	소매가격	구매장소	종류	사진촬영 일자
	중국	USD \$3.84/개	Gourmet Supermarket	하미 메론	3/10/2014
	일본	USD \$33.2/개	Gourmet Supermarket	아루스 메론	3/10/2014

5) 사과

사진	원산지	소매가격	구매장소	종류	사진촬영 일자
	중국	USD \$0.59/개	Gourmet Supermarket	후지 사과	3/10/2014
	일본	USD \$4.37/개	Citysuper	쓰가루 사과	3/10/2014

사진	원산지	소매가격	구매장소	종류	사진촬영 일자
	뉴질랜드	USD \$2.19/개	Citysuper	후지 사과	3/10/2014

6) 배

배	원산지	소매가격	구매장소	종류	사진촬영 일자
	포르투갈	USD \$0.256/ 100g	Gourmet Supermarket	로챠 배	3/10/2014
	중국	USD \$0.394/ 100g	Gourmet Supermarket	센추리 배	3/10/2014
	벨기에	USD \$0.464/ 100g	Gourmet Supermarket	컨퍼런스 배	3/10/2014

홍콩의 과일 및 채소 시장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 홍콩aT센터, Ipsos

발 행 일 : 2014. 10.

발 행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9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408

- 「aT get」은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